

읽어주곤 했는데, 그럴 때면 눈물겨운 추억에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 그는 비르지니에게서 안티오페의 위엄과 지혜가, 그와 함께 유카리스가 겪은 불행과 자애로움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 그러나 한편으로 풀은 우리 시대에 유행하던, 음탕한 풍속과 외설적인 금언이 가득한 소설을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네. 그리고 이런 소설들이야말로 유럽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리 판단할 만한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던지라, 비르지니가 그린식으로 타락해서 자기를 잊게 될까 두려워했어.

사실 일 년 반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라 투르 부인은 이모님한테서든 딸한테서든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네. 다만 외국의 소식통을 통해 딸이 무사히 프랑스에 도착했다는 것 정도만 알게 되었지. 마침내 부인은 인도로 향하는 배편에서 소포 한 상자과 비르지니가 직접 쓴 편지 한 통을 받았네. 어질고 사려 깊은 딸의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라 투르 부인은 비르지니가 매우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그 편지는 비르지니가 처한 상황과 그 아이의 성격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었기에, 내 단어 하나하나 거의 한 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네.

비르지니 드 라 투르 올림.